

강진 '팜파스 그라스 꽃 단지 체험농장 조성' 업무협약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주)비아이비 지원

9만㎡ 규모 팜파스 그라스 군락지 조성 계획

강진군이 지난 22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과 (주)비아이비와 함께 '강진군 팜파스 그라스 꽃 단지 체험농장 조성'을 통해 활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욱 군수를 비롯해 상저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팜파스 그라스란 외래종 억새과로 키는 3m 넘게 자라며, 활모양으로 늘어진 잎들이 모여서 둥근 형태로 커다란 포기를 이루며 자란

다. 팜파스 그라스는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이 풍성해지면서 모두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이후 꽃에 색을 입혀 연핑크, 노랑, 연두, 하얀색 등 다양한 색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번 협약은 협약 주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강진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잘사는 농어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고품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사실상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에 대한 해법으로 쾌적한 대구면 저두리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원예 작물을 식재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은 대구면 상저마을 주민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은 대구면 상저마을을 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작물재배, 농산물 가공과 함께 판매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비아이비가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구면 상저마을을 일대 9만㎡(2만7천 평) 규모에 팜파스 그라스 군락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

이다.

이승욱 군수는 "국가에서도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경관작물을 통해 휴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평생 일귀는 농토를 흔쾌히 내어주시는 등 고향 강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상저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 김병운 대표는 "갈수록 고품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농사짓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원예작물 재배로 더 쉽고 새로운 소득원이 나와서 우리 상저마을 모든 주민들이 회원으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이 지난 22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산 저두 농업회사법인과 (주)비아이비와 함께 '강진군 팜파스 그라스 꽃 단지 체험농장 조성'을 통해 활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청산도 밤마실 행사...섬 체류관광 콘텐츠 가능성 확인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름밤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



완도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한 '청산도 밤마실' 행사가 체류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섬 관광 콘텐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산도 민박업협회인 '청산휴가'의 주관으로 운영한 청산도 밤마실 행사에는 사진작가 180여명 등 1,285명이 참여한 기운

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산도 밤마실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입도 통제가 실시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경제마저 침체됨에 따라 지역 활력화를 바라는 청산도 주민 건의에 의해 여름밤 비대면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청산도 등불 야행, 달빛 포토존, 갯돌 소리쉼터, 다랭이는 배미수 맞추기 등 8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청단풍길과 밤바위 주변에서 반딧불이와 은하수를 촬영하는 출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체류 관광자원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완도군은 이번에 참여한 사진작가들로부터 반딧불이와 은하수 사진을 확보하여 각종 행사 시 전시회를 개최하고 청정완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편제길에는 밤마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시 경관 조명을 설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감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은 안심하고 관광객들은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9일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 첫 출발부터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주요 밤마실 장소에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행사를 진행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코로나 ZERO, 해남에서 힐링하세요

해남군, 부산·경남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해남군이 코로나 이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비해 부산경남 지역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군은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여행사 대표 및 실무 관계자 22명을 초청, 1박 2일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 확산이후 관광트렌드가 개별여행 및 힐링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해남의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는 울돌목 우수영

관광지를 시작으로 해남공룡박물관, 미항사 및 달마고도, 땅끝관광지, 대흥사, 고산윤선도 유적지 등을 두루 둘러보고, 땅끝청정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 관계자들은 팸투어 기간 동안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군은 이를 반영해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장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 실시

자녀 키우는 청소년 안정적 양육 지원 방안 논의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장흥교육청, 장흥경찰서, 학교 및 유관기관 담당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지역협의체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장흥교육청에서는 나이스연동체계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생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용이하도록 나선다고 밝혔다.

추후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되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도,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행사 개최

진도군에서 최근 도시 소비자 40여명을 초청,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행사를 개최했다.

'홍감자 구출 대작전'이라는 주제로 군내면 송산리에 위치한 진도농부 농장에서 열린 행사는 ▲홍감자 수확 체험 ▲레인보우 비빔밥 만들기 ▲홍감자 샐러드 등으로 진행됐다. 진도농부 농장은 홍감자, 고추, 배추 등 제철 유기농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

게 재배하고 있다. 특히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등을 생산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아이들과 직접 수확 체험을 해보니 농산물에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는 체험 행사를 실시해 진도군 농산물의 신뢰가 상승하



고, 생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